

# 經濟發展과 自然保護

崔 在 善\*

- I. 序
- II. 經濟生活과 自然과의 關係
- III. 經濟開發過程에서 資源의 役割
- IV. 自然保護의 價值觀
- V. 經濟開發의 速度와 自然保護
- VI. 自然保護運動의 效果的 推進方案
- VII. 結論

## I. 序

우리나라는 1962年 이후 4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루어 왔다. 1978年の 1人當 GNP는 1,200달러를 上廻하였고 對外輸出은 125億달러를 超過達成하였다.

한편 앞으로 13年후인 1991年에는 經常價格으로 1,150億달러의 對外輸出과 7,700달러의 1인당 GNP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韓國經濟의 急成長은 輸出第一主義에 힘입은 각종 政府支援, 企業의 努力 그리고 國民의 耐乏의 結實이라고 볼 수 있으나 產業化에 따르는 각종 外部效果(externalities)의 發生과 환경의 파괴는 새로운 단계를 향한 成長을 저해하는 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自

然保護運動이 汎國民的 次元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1978年 10月 自然保護憲章이 制定公布됨으로써 同運動의 기틀이 마련됐고 또한 온 國民의 關心 가운데 同運動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同運動의 기본적 취지는 國家와 民族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自然과 環境을 保全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同運動을 展開하고 참여하는 각사람의 마음 속에 自然과 資源에 대한 옳바른 認識을 缺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自然에 대한 價值觀의 혼미 속에서 同運動을 土着化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自然保護運動은 經濟開發과 相衝되는 關係下에 있게 되는 것으로 그릇 認識되어 드디어는 同運動의 진실한 目的을 상실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自然利用의 效率性마저도 상실하여 낭비를 招來하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本稿는 經濟發展과 自然保護와의 관계를 價值觀의 側面에서 考察하고 그 效率的推進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II. 經濟生活과 自然과의 關係

원래 經濟開發이란 말은 自然 그대로의 것 혹

\* 中央大學校 地域 및 資源經濟學教授, 經濟學博士.

은 自然을 人工的 財貨와 用役으로 變化시키는 과정을 意味한다. 이는 成長과 變化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成長이라 함은 生產性의 增大過程을 의미하고, 變化라 함은 非市場性 財貨와 用役을 市場性 財貨와 用役으로 變化시키는 過程을 의미한다.<sup>2</sup> 아무튼 이 둘은 모두 새로운 適應이라는 고통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실로 人間의 歷史는 人間과 自然間의 투쟁의 歷史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에서 승리한 地域에서는 繁榮과 豐饒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敗北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人間들은 貧困과 逆境 속에서 살아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누릴 수 있는 豐饒는 단지 物質的이거나 금전적인 것일 뿐 발전의 代價로서 커다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人間의 意志는 自然을 征服했으나 이로 因해서 많은 자연적 快適이 破壞되어 왔다. 맑은 공기와 물(水), 空地, 樹木 그리고 각종 들짐승들은 점점 희소해지고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부터 점점 加工된 상품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經濟開發이라는 것은 거의 1세기를 통하여 자연적 快適을 生產된 財貨로 代替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人間이 빈곤할 때에는 이러한 代替가 바람직한 것이었지만 人間의 一次的 欲求로서의 物質的 欲求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일정 한계를 넘은 代替는 오히려 보다 큰 불만을 초래하게 되어 代替의 意味를喪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의 除去를 위해서는 막대한 費用을 支拂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물고 간다. 이와 같이 經濟開發은 수많은 問題를 誘發시켰는 바 그 중 중요한 것만 整理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人間이나 物質의 생존에 필요한 生態環境이 변화되거나 혹은 파괴되어 人間이 이것

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큰 費用을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둘째로 自然毀損은 動植物의 生態體系를 통하여 형성되는 食物連鎖(food-chain)와 에너지連鎖(energy-chain)를 혼란시키거나 파괴시킴으로써 人間生活에 必要한 資源基盤(resource foundation)<sup>3</sup>을 破損시키게 된다. 따라서 人間은 새로운 開發을 위해서 보다 많은 費用을 支拂해야 하거나 전혀 資源을 획득할 수 없는 어려움에直面하게 되었다.

세째로 開發을 통한 快適資源(amenity resource)의 파괴는 人間의 精神的 또는 情緒的 秩序의 파괴를 가져 오게 되어 健全社會建設이나 明朗社會建設을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費用을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人間의 物質的 幸福과 편리한 生活을 위한 개발이라는 문제의 해결은 生態環境의 파괴, 資源基盤의 파괴, 그리고 快適의 파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이 經濟開發의 問題解決은 새로운 문제를 안겨다 주어 드디어는 “해결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sup>4</sup> 아이러니를 낳게 되었다.

人間은 드디어 生產된 財貨와 자연적 istrical 간의 限界代替率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선택의 原理까지 도입하기에 이르를 것이다. 왜냐하면 開發過程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物量的 成長을 위한 노력이 人間을 위한 높은 수준의 自然環境을 維持하려는 노력과 相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物量的 成長은 많은 土地, 山林, 水資源 그리고 기타 自然資源을 필요로 하고 또 소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間은 人間自身的 생존을 위한 生態環境으로서의 自然環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持續的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도 自然資源

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開發過程에서 발생하는 空氣의 汚染, 水質의 變化, 土質의 變化 그리고 騭音의 蔓延 등은 새로운 問題로서 어느 면에서는 經濟開發의 횡포로서 묘사되기도 하고 있다.

### III. 經濟開發過程에서 資源의 役割

그러면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經濟學에서는 어떻게 接近하고 있는가. 自然 資源이 經濟開發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考察해 보기로 하자.

우선 古典經濟理論에 의하면 한 社會의 經濟成長은 그 社會의 經濟成長에 기여할 수 있는 制度나 여건들을 갖출 수 있는 社會的 力量에 달려 있다고 한다. 따라서 經濟成長은 人口의 增加와 經濟成長間의 相互 저해적 役割로서 저축은 감소되고 식량생산에 보다 큰 投資를 강요하게 되어 利潤率과 成長率은 零에 가깝게 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생활수준은 생계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본다.

結果的으로 人口는 增加하고 經濟成長率은 零에 가깝고 설령 經濟活動이 크게 진보되었다 하더라도 인류의 生活은 결코 향상되지 못 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古典經濟學에서는 經濟成長이 주기적인 것이어서生存, 成長 그리고生存의 順으로 순환한다고 보았다. 成長에 따르는 所得의 增大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고 人口의 增加를 촉진하게 되어 즉시 정체를 가져 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資源의 稀少性 問題는 人間의 조건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新古典學派에 의하면 기업의 獨占化와 資源의 獨占的 利用으로 인하여 經濟社會의 균형은 깨어지고 價格機構에 의한 市場的機能은 약화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파레트適正(Pareto Optimum)<sup>5)이 不可能할 뿐 아니라 資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分析한다. 드디어는 資源의 選擇的 利用의必要性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經濟學에 의하면 資源利用에 있어서 선택적 이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하나가 선택되고 다른 하나는 거부되어야 한다. 거부된 것은 선택된 것의 費用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철강재의 사용이 차량의 生産에 선택되고, 철교건설에는 거부되었다고 한다면, 철교건설에서 나타난 非生產이 차량건설의 機會費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sup>

여기에서 非生產物인 철교건설에서 포기된 社會的 價值는 차량건설에서 나타난 社會的 價值로서 表現되고, 또 이것이一致할 때 資源의 適正利用이 이루어 진다고 말한다.

現代經濟學에서는 農業이 產業資本形成을 위한 勞動力과 資本을 배출함으로써 經濟開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C.G. Johnson)<sup>6</sup> 土地의 相對的 價格은 하락했고 새로운 資源으로서의 人間의 知識, 技術, 研究, 教育, 健康 등 重要性이 漸高되어 가고 있다(T.W. Schultz)<sup>7</sup>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나 假說이 一部 資本主義 國家에서 증명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人口急增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위기에直面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國家에서 資源의 役割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要求되고 있다.

왜냐하면 技術의 發達로 인한 식량의 増產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할지라고 이에 따르는 費用, 격증하는 인구, 복잡해지는 社會에서 요청하고 있는 環境資源(amenity resources)과 資源의 質의 向上에 대한 需要의 急增 등은 資源問題에 대한 새로운 次元의 接近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資源의 供給豫側은 전혀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技術의 發達을 預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설령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費用, 공해로부터 오는 불만(dissatisfaction)과 不生產(disproduct) 즉 社會的 費用을 支拂할 能력이 있는가가 問題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달과 教育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해오고 있다. 그러나 人口增加 및 기계의 고도화 등은 自然을 더욱더 유린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資源의 量的 質的 수준을 감소시키게 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환경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인하여 나타나는 社會的 費用은 더욱 더 增大되어 갈 것이다. 資源利用에 따르는 社會의 便益과 社會的 費用을 일일히 측정하기란 심히 어려운 문제이고 資源經濟學者들이 이의 해결을 위하여 부심하고 있는 터이다. 기존의 資源이라도 邑正 혹은 效率의 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즉 收益과 費用 側面에서 環境과 資源의 質을 고려할 수 있다면——적어도 社會福祉는 極大화될 것이라고 본다.

#### IV. 自然保護와 價值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經濟開發과 自然은 서로 깊은 相關關係下에 있음을 보았다. 高度產業化以前段階에서 開發은 人間의 問題를 解決해주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高度產業社會에 와서는 問題의 解決이 새로운 問題를 야기시켜 人間은 보다 快適한 環境과 보다 많은 物質間의 限界代替率을 결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點을 논의하였다. 이는 몇 단위의 快適度를 높이기 위해

서 몇 단위의 生產量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의 問題를 보다 合理的으로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快適을 택할 것이나 혹은 生產을 택할 것이나의 擇一的 問題가 아니고 1單位의 快適을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社會的 厚生의 量과 1單位의 追加的 生產을 통하여 획득되는 社會的 厚生의 量間의 限界代替率의 問題로 대두되는 것이다.<sup>8</sup> 環境經濟理論에 의하면 前者와 後者の 交換比率이 같을 때 資源의 邑正配分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均衡이 깨어질 때는 資源은 보다 적은 厚生을創造하는 곳으로부터 보다 많은 厚生을創造하는 곳으로 移動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移動을 보다 圓滑히 해줄으로써 社會的 厚生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傳統的 經濟理論을 導入하면 X財와 Y財를 消費하는 消費者가 消費者均衡에 도달하려면 消費者의 無差別曲線과 豫算線의 接點에서 두 財貨의 消費量을 決定함으로써 消費者效用을 極大化하게 된다. 이때 消費者效用極大化 條件으로서는 두 財貨의 限界代替率 즉 X財를 表示한 Y財의 限界代替率( $\Delta X / \Delta Y$ )과 X財와 Y財의 價格逆比( $P_X / P_Y$ )가 一致될 것을 要請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社會的으로 볼 때 物質的 厚生과 非物質的 厚生間의 限界代替率도 두 要因間의 厚生無差別曲線과 두 財貨의 社會的 價格逆比가 一致되는 點에서 決定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두 財貨 혹은 두 要因間의 價格比가 市場의 價格機構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므로 두 財貨 혹은 두 要因間의 社會的 生產可能性曲線을 求하고 이 두 曲線의 接點에서 物質的 厚生의 產出量 및 消費量을 決定하고 또한 非物質的 厚生의 產出量 및 消費量을 決定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物質的 厚生의 產出量과 非物質的 厚生間의 限界產出比는 두 財貨의 限界消費代替率과 같게 될 것이며, 이때 비로서 社會的 厚生은 極大化되고 資源의 適正配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여기에서 問題로 대두되는 것은 個人消費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社會的 厚生無差別曲線을 測定할 수 있겠느냐이다. 이는 두 財貨로부터 발생하는 社會的 效用이나 厚生의 交換比率를 決定한다는 것은 극히 主觀的인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現代經濟學에서는 두 財貨의 厚生交換比率을 測定하기 보다는 機會費用<sup>10</sup>의 개념을 導入하여 社會的 厚生의 極大化 方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송이의 들국화의 價值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것의 生產費 + 適正利潤의 古典的인 方式에서 벗어나 한송이의 들국화가 生產하는 社會的 價值로서 혹은 이것이 存在하지 않음으로써 誘發하게 될 社會的 費用 혹은 不快感 등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 및 자연의 파손으로 인하여 우리가 支拂해야 할 社會的 費用은 이것의 파괴로부터 오는 不快感 플러스 이의 회복을 위해 支拂해야 하는 費用의 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經濟的合理性에 입각한 投資效率性만으로서 價值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가령 農業投資收益성이 工業의 그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農業에 投資하는 것보다 工業에 投資하는 것이 옳다는 論理가 生活空間의 確保, 環境의 保全 및 open space의 確保라는 理由에서 排除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代替의 基準이라던가 幅이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物質的 厚生과 非物質的 厚生에 대한 價值觀의 問제를 先決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 V. 經濟開發의 速度와 自然保護

다만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物質的 幸福과 非物質的 幸福間의 價值賦與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經濟開發이 가져다 주는 物質的 幸福과 편리한 生活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人間의 참다운 幸福은 증가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物質的 幸福과 편리한 生活은 오히려 人間을 지루하고 따분한 存在로 바꾸어 놓는다면 不安과 초조를 자아내게 하여 오히려 새로운 不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이것은 人間만이 가질 수 있는 物質的인面과 精神的인面의 兩面性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人間은 情緒的 혹은 精神的 豐饒敘는 物質的 豐饒의 증대만으로서는 그 행복을極大化할 수 없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되었다. 실제로 物質的 풍요 속에서 西洋의 褊은이들은 정신적 정서적 풍요 속의 東洋의 褊은이들 보다 많은 犯罪와 道德的 타락을 일삼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物質的 幸福이 급격하게 증대해가는 반면 相對的으로 精神的 및 情緒的 幸福이 오히려 도외시되고 있는 곳에서는 開發의 利益보다 開發의 費用이 보다 빠른 속도로 증대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人間의 幸福은 個人的 입장에서만 파악되고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國家와 社會全體의in 次元에서도 解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純國民所得(NNP)이 계속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정도에 따라 純社會的 厚生(NSW) 즉 幸福은 개발시간의 흐름에 따라 退減해 간다는 사실이다.

즉, 純社會的厚生(NSW)은 서서히 증가(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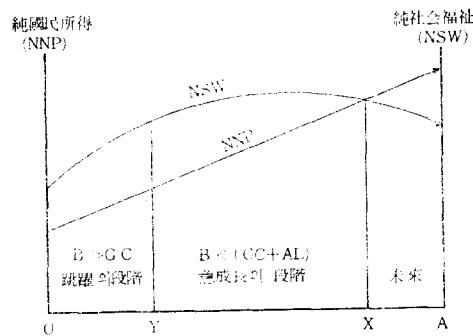
감소하는 率로 증가)하다가 어느 점에 이르러 極大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감소해감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에 의하면 跳躍의 단계에서는 純國民所得, 즉 物質的 幸福이 증가해감에 따라 社會的 厚生이 보다 큰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開發의 利益(B)이 開發의 費用(GC) 보다 큰 ( $B > GC$ ) 結果를 냥게 되어 모든 사람들은 開發의 妥當性을 주장하고 그重要性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國民所得이 1,000달러 以上으로 증대해가고 (이는 國家와 社會마다 다르기는 하지 만) 人間의 精神的 價值나 情緒的 價值를 보다 중요시한 경우에는 開發로부터 오는 快適의 衰失(AL)과 開發費用(GC)의 增大가 크게 意識되어 드디어는 社會的 厚生이 物質的 厚生에 의해 침해를 당하게 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國民은 보다 높은 水準의 所得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相應하는) 높은 水準의 快適이나 環境을 要請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손된 快適이나 非市場性 資源의 損失로부터 오는 費用의 增大(AC)와 開發費用(GC)의 增大가 오히려 開發利益(B)보다 큼을 意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開發의 不利益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도 自然과 環境의 保全이 開發의 進行될 경우에는 그림에서 XA 구간으로 표시되는 未來의 區間에 接하게 되어 物質的 幸福에도 불구하고 社會的 純厚生은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어려움을 經驗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開發의 費用이 開發의 利益보다 큰 경우를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그림의 Y와 X 사이의 어느 점에 到達해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開發의 利益이 開發費用增加 플러스 快適損失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하다.

다면 우리는 이것을 測定하기 힘들고 또한 意圖의 으로 投資의 効率性을 強調하는 物量為主의 政策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올바른 測定을 기회하기 때문에 把握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現實의 으로 이러한 것들은 努力만하면 어느 정도는 測定可能한 것들이며 또한 環境經濟學의 課題가 그것이다.



## VI. 自然保護運動의 効果的推進方案

前述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GNP의 增大나 보다 살기 좋은 快適이냐 하는 問題를 感상적 次元에서나 自然에 대한 단순한 信仰的 次元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 問題는 資源의 合理的 利用과 管理라는 側面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自然保護運動은 첫째, 自然是 끊임 없는 保護로서 再生 또는 保存이 가능함을 무엇보다 먼저 認識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非觀論者들은<sup>11</sup> 自然의 회복 또는 保全은 불가능하므로 終末에는 自然의 罷死로부터 우리는 悲劇을 맛 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실로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의 知識과 技術의 發達 그리고 所得의 向上은 보다 많은 人工的 資源으로 自然

的 資源을 代替해왔고 또 그럴 것이기 때문에 努力만 하면 한강물은 언젠가는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自然에 대한 보다 樂觀的인 態度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自然保護運動을 단순한 캠페인 形式에서 그치거나 일부 인사들의 메모스트레이션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洪國民的으로 그리고 綜合科學의로 推進해야 하는 것이다. 즉 自然은 生活空間과 生態環境을 提供한다는 단순한 生態學의 接近으로부터 自然은 生活 및 生產資料인 自然資源의 源泉임을 널리 教育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生態學, 環境衛生學, 環境經濟學 등의 광범위한 知識을 동원하여 보다 綜合科學의로 接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한 한강물(pure water)을 보유할 수는 없다. 깨끗한 물을 保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費用을 支拂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깨끗한 물(purer water)을 保有할 수는 있다. 이는 多少의 生產을 포기하거나 費用을 支拂함으로써 오늘보다 좀 더 깨끗한 물을 保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自然保護의 問題는 누가 經費를 支拂하고 누가 利益을 가져갈 것인 가라는 所得再分配의 問題로 鈑拭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同問題를 단순한 環境衛生의 側面에서나 혹은 生態環境의 側面에서 취급하기보다는 오히려 選擇의 理論에 根據한 강력한 環境經濟學의 理論에서 그 問題의 解決을 찾는 綜合科學의 接近이 要請되는 것이다.

세째, 自然保護運動은 사람이 自然을 保護하고 사랑하는 自然信仰의 혹은 感傷의 次元에서 탈피하여 自然의 管理的 側面에서 展開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信仰과 感傷은 利害關係보다 그 설득력이 약한 뿐만 아니라, 哲學的으로는 自然은 人格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自然에

人格을 賦與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論理이다. 만일 自然에 人格을 賦與하게 되면 人間 타락은 自然을 파괴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自然은 우리의 生活의 基盤이요 資源의 基盤이므로 効率的으로 管理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論理인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意味에서의 自然保全은 무조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장 必要할 때 즉 가장 큰 滿足을 가져올 때 効果的으로 使用하는데 있는 것이다.<sup>12</sup> 自然에 人格을 賦與하거나 人格과 自然을 同格視함으로써 人格의 非人格化 혹은 非人格의 人格化를 招來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結果는 오히려 人間을 自然을 보다 더 파손하는 人格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格은 自然을 보다 合理的으로 管理하고 보다 効率的으로 利用해야 한다는 大前提下에서 自然保護運動이 展開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自然에 대한 價值觀의 差異는 東洋的 自然觀과 西洋的 自然觀과의 哲學的 差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東洋의 自然觀<sup>13</sup>은 人間은 自然으로부터 와서 自然으로 돌아간다는 思想이다. 이러한 思想의 底邊에는 人間만이 保有하고 있는 人格의 非人格化 혹은 非人格인 自然의 人格化를 선연하는 것이다. 이는 佛教의 自然思想인 것이다. 이러한 自然思想은 人格의 타락으로 인하여 自然이 無差別하게 파괴된다는 위험성을 排除하고 있지 않는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西洋의 自然觀<sup>14</sup>에 의하면 人間은 神이 創造한 人格的 存在이고 自然은 人間의 生存과 生活의 基盤이 되는 非人格的 存在인 것이다. 神은 人格으로 하여금 非人格을支配하고 管理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 昌盛하고 繁盛할 것을 命했기 때문에 人格의 非人格에 대한 올바른 管理를 통해서 만이 人格의 幸福이 增大됨을 約束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自然의 파괴는 人間 타락의結果 이지 神의 섭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自然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가져야 하고 人間의 책임과 의무를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人格의 非人格化도 非人格의 人格化도 結果的 으로 人格의 墮落을 招來하게 되어 드디어는 自然파괴는 계속될 것이므로 人格의 非人格에 대한合理的管理를 위한 올바른 哲學的 자세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 VII. 結論

지금까지 本稿는 經濟開發과 自然保護의 必要性에 관하여 그리고 自然保護運動의 推進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自然保護의 必要性은 經濟開發이 가져다 주는 副產物인 環境破損으로부터 發生하지만 自然保護는 感傷的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 운 段階로의 經濟開發을 위한 資源의 確保라는 次元에서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物質的 幸福이 重要한 것인가 非物質的 幸福이 重要한 것인가 하는 問題는 그 나라의 國民의 그 時代에 따른 性向(preference)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이들은 결코 擇一的 관계에 걸쳐 휘갈피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둘은 반드시 選擇의 理論에 입각한 機會費用의 理論에서 취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重要한 것은 自然에 대한 올바른 價值觀의 확립이 보다 절실히 要請된다. 왜냐하면 人間만이 人格者이고 非人格인 自然을 管理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非人格인 自然은 人間을 管理할 責任感도 義務도 느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人格의 非人格化도 非人格의 人格化도 있을 수 없다. 人格이 非人格에 대한 態度는 오로지合理的인 管理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註 1.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開發, 1977~1991年, pp. 42~49 그리고 pp.73~88参照

2. Paul W. Barkley and David W. Seckler,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Deca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p.41,

3. 資源基盤은 太陽에너지가 生態體系속에 흐름을 통해서 無機營養生物, 草食動物, 肉食動物 등의 生存을 위한生活基盤을 조성하여 人間에게 무수한 資源을 供給해 줌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連鎖」가 파괴되면 資源基盤이 破損된다. 보다 자세한 内容을 위해서는 Edward J. Kormondy, *Concept of Ecology*, Prentice Hall, N.J., 1969, pp.7~33参照

4. 이와 같이 人間의 딜레마를 哲學的으로 잘 表現한 글은 Popper in Karl R.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George Routledge and Sons, 1945에 잘 나타나 있다.

5. Pareto遞正이란 가령 A와 B가 두 財貨 X와 Y를 消費한다고 할 때 A 혹은 B가 一定量의 X와 Y의 消費量을 통하여 滿足한 狀態下에 있어서 그 消費量을 變化시키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의 相對方도 그의 狀態下에 있을 때를 말한다.

6. D. G. Johnson,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in Clawson, M, *Natur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p.3~26.

7. T.W. Schultz, "The Declining 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al Land" The Economic Journal, Vol. 61 (Dec, 1951) pp. 725~741.

8. 실로 環境經濟學의 全領域은 物質的 幸福과 非物質的 幸福間의 選擇의 問題를 카バー한다.

9. 이 問題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研究하고자 하는 독자는 F. M. Bator, "The Simple Analytics of Welfare Maximization" in William Brect and Harold M. Hochman, *Readings in Microeconomics*,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3, pp. 455~483을 참조할 것.

10. 機會費用의 概念에 관해서는 「生產經濟論」崔在善著, 法文社, 1978, pp.182, 344, 441을 參照할 것.

11.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 *The Quality of Man's Environment*,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68, pp.25~33을 參照할 것.

12. 資源의 保存(conservation)에 관한 가장 훌륭한 論議는 S.V. Ciriacy-Wantrap, *Resource Conservation Economics and Polic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2.

年 第 4 章을 參照.

13. 東洋의 혹은 佛教的 自然觀을 위해서는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F.A. Schaeffer,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Tyndale House, 1973. pp. 97~115 參照.
14. 西洋의 自然觀을 위해서는 "The Christian View The Pilot Plant" Francis A. Schaeffer, 前揭書 pp.81~96.

#### <參考文獻>

1. P.W. Barkley and David W. Seckler,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Deca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2.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s, *The Quality of Man's Environment*, Smithsonian Institution Symposium, VAFL, 1967.
3. Rovort Dorfman and Nancy S. Dorfman, *Economics of the Environment; Selected Readings*, Norton & Company, 1972.
4. E.J Kormondy, *Concepts of Ecology*, Prentice Hall 1969.
5. E.J Mishan, *Economics for Social Actions*, Praeger, 1971.
6. \_\_\_\_\_, *The Costs of Economic Growth*, Pelican Books, 1973.
7. D.W. Pearce, *Environmental Economics*, Longman, 1976.
8. Joseph J. Seneca and Michad K. Taussig, *Environmental Economics*, Prentice Hall, 1974.
9. Francis A. Schaffer,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Tyndale House, Wheaton Ill, 1970.
10. 公害의 經濟的 接近, 韓國經濟研究센터, 1973.
11. 生產經濟論, 崔在善著, 法文社, 1978.
12.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1991, KDI, 1978. 乙外 論文多數.